

오늘부터 1.5단계...다시 공연장에서 만나요

시립단체·금호문화관 공연 활발
18일 아벨과르텃 슈베르트 연주
24일 광주시향·김도현 협연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
손민수·윤혜리·백주영 등 무대



백주영 김도현

정부가 15일부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낮춘다. 이에 따라 2단계에서 적용됐던 방역 지침인 '좌석 두 칸 띄어앉기'가 '동반자 외 한 칸 띄어앉기'로 완화되고, 더욱 많은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광주 지역 내 공연장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하 회관)은 올해 광주시립예술단 첫 공연인 GSO 오티움 콘서트를 비롯해 발레 살롱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으로 관객과 만나며, 유스퀘어 문화관도 현악4중주단 아벨과르텃, 피아니스트 손민수, 플루티스트 윤혜리 등을 초청해 무대를 꾸민다.

먼저, 광주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 GSO 오티움 콘서트 I '비엔나의 봄'이 오는 24일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GSO 오티움 콘서트는 지난해 선보인 기획공연 GSO 11시 클래식에서 이은 공연으로 국제무대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젊은 클래식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고 다양한 음악작품을 해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다. 올해는 두달에 한번, 하루 두차례 무대를 선보이며, 클럽 발코니 편집장이자 음악칼럼니스트 이지영이 해설자로 무대에 오른다.

이날은 피아니스트 김도현이 협연자로 등장해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7번'을 협연한다. 2017년 영 콘서트 아티스트 국제 오디션 1위를 차지하고 뉴욕 머긴홀과 워싱턴 DC 케네디 센터에서 데뷔한 김도현은 현재 클리블랜드 음악원 전문 연주자 과정에 재학 중이다. 피날레 곡은 베토벤 교향곡 2번이다. 전석 1만원 (학생 50% 할인).

광주시립발레단의 발레 살롱 콘서트 #1 '브루흐&바흐 스위트 by 김용결'은 오는 3월 13일 오후 2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당초 6일 관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광주시립예술단 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연기됐다.

이날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안무가인 김용결의 창작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시간으로 브루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과 바흐의 '파르티타 1번', '바이올린 소나타 3번' 등으로 구성된 바흐 모음곡에 맞춘 안무를 선보인다. 무대에는 공유민·우건화·강민지·김희준·전진미·보그단 등이 오르며 해설은 광주시립발레단 최태지 예술감독과 김용결 안무가가 함께 맡는다. R석 1만 5000원, S석 1만원, A석 5000원.

국내외에서 작품성 및 대중성을 인정받은 공연

을 소개하는 회관 기획공연 포시즌(For Season)은 3월 14일 '임동민 & 임동혁 듀오 리사이틀'(오후 5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17일 티켓 오픈)로 시작한다. 이번 공연은 두 사람이 25년 만에 선보이는 듀오 무대로 슈베르트 '네 손을 위한 판타지', 라흐마니노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교향적 무곡'을 연주할 예정이다.

임 씨 형제는 2005년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공동 3위 (1위 라파우 블레하츠)에 오르면서 1927년 시작된 이래 78년 동안 단 한번도 없던 쇼팽 콩쿠르 최초의 한국인 입상자 및 최초의 형제 입상자로 주목받았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아벨과르텃 제4회 정기연주회 '안단테 칸타빌레'를 선보인다.

지난 2013년 결성된 아벨과르텃은 윤은솔(바이올린), 박수현(바이올린), 문서현(비올라), 조형준(첼로)으로 구성됐으며 레퍼토리는 슈베르트의 '현악사중주 제12번 다단조 과르텃자츠',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제6번 바단조', 차이코프스

키의 '현악사중주 제1번' 등이다. 아벨과르텃은 2015년 하이든 국제 실내악 콩쿠르 1위를 수상했으며 2016년 제71회 제네바 국제 콩쿠르에 한국인 최초 현악사중주 부문 3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일방 3만원, 학생 2만원.

지난 2017년부터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을 연주 중인 피아니스트 손민수의 무대는 3월 12일 (오후 7시30분) 만날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로 연기됐던 이날 공연은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시리즈의 마지막 무대로 베토벤 만년의 깊이가 더해진 결장으로 손꼽히는 마지막 세 개의 소나타 '30·31·32번'을 들려준다.

캐나다 호넨스 국제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 우승 및 호넨스 프라이즈를 수상하며 주목을 받은 손 씨는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일방 3만원, 학생 2만원.

이밖에 윤혜리 플루트 독주회는 3월 20일 (오후 7시) 열리며, 바이올리니스트 백주영과 피아니스트 이지영 듀오 리사이틀은 3월 23일 (오후 7시30분) 만날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



현악4중주단 아벨과르텃

'문화예술 청년 취업박람회' 17~19일 온라인 잡마켓 홈페이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는 문화예술계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기반 취업 박람회를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한다.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 지원사업'은 만 3세 이하 문화예술분야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예술계 청년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비전공자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격증이나 3개월 이상 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채용이 가능하다.

이번 행사는 '2021 아르코 예술인력지원 온라인 잡마켓'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며, 시각예술·문학·연극·무용·음악·전통예술·문화일반 7개 분야 문화예술단체 334개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동안 온라인 잡마켓 홈페이지(<http://arkojob.kr/>)를 통해 모든 참여단체 채용정보가 제공되며 채용 지원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온라인 잡마켓이 개최되는 3일 동안 연수단원 통합 채용설명회, 채용서비스로 진행되는 참여단체와의 1:1 채용 상담, 비대면 매칭 면접 등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잡마켓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사전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할 수 있으며, 이 기간 각 단체의 채용정보는 통합 디렉토리북의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의 02-760-463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예술여행 100인포럼'

16일 양림동 10년후그라운드

광주시가 주최하고 ㈜유스퀘어, 예술여행학교가 주관하는 '예술여행 100인포럼'이 16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년후그라운드(남구 양촌길 1)에서 열린다.

이날 포럼에서는 예술여행 비전 공유와 함께 지난 11월부터 진행되었던 예술여행학교의 성과를 공유하고, 예술여행도시 광주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 등을 진행한다.

발제는 이선 이강하미술관 학예연구사와 김기남 플래티늄 여행사 대표가 각각 '광주예술관광 예술현장의 새로운 힘'과 '광주 예술문화관광, 왜 활성화 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진행하며, 발제 이후 예술여행도시 광주에 대한 토론이 열린다. 포럼은 현장과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 참여는 50명 이하로 제한한다.

광주시는 지난 5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대한민국 예술여행 대표도시, 광주' 비전 선포식을 열고 예술여행 육성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예술여행 콘텐츠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거버넌스 구축 등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문의 070-4763-507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방색 입은 '입석(立石)'

라필주 전, 16일까지 다산미술관

다산미술관(화순군 사평면 다공길25)이 라필주 작가 초대전을 16일까지 개최한다.

'입석(立石)'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라 작가는 우리 전통 고유 색인 '오방색'을 바탕으로 작업한 작품을 선보인다. 라 작가는 적(赤)과 황(黃), 청(靑)을 토대로 다채롭게 풀어낸 작품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한국 도자기의 대표적인 분청의 장식 기법을 응용한 '트임기법'을 통해 전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해 온 그는 분청사기가 기존의 그릇(器)의 한계성을 탈피해 좀 더 우리 삶과 밀착할 수 있도록 변용을 가한 작품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호남대를 졸업하고 꾸준히 작업활동을 해온 라 작가는 대중들에게 정통 도예 예술을 알리기 위해 광주시 북구에서 공방 '수레질'을 운영하



'서석(瑞石)'

고 있다.

한편 다산미술관은 다음 전시로 노영숙 작가의 '해면의 遊戯 전과 오해는 작가의 '삶과 죽음 The sum of boundaries' 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CC 공연작품 희곡집·전자책으로

'나는 광주에 없었다' 등 7권 발간

김민정의 '시간을 질하는 사람', 고선웅·김경주·안준원의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희곡 작품집과 전자책으로 발간됐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창·제작 공연 작품을 희곡집(7권)과 전자책(E-BOOK)으로 발행했다.

공연이 끝난 작품을 희곡으로 출판한 것은 공연출판계에서도 이례적인 일로, 작품 모두 ACC 상연 공연 중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희곡으로 발행된 작품은 공연 5편과 어린이 공연 2편 등 모두 7권이다. 국문과 영문을 비롯해 공연 사진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희곡에는 양정웅 대본 '드라곤 킹',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원작으로 고연옥이 각색한 '레드 올랜더스', 입과손스튜디오의 작 '스토리 인 아시아' 등도 포함됐다. 어린이 공연 희곡은 영국 작가 필 포터의 '여왕과 나이트게일', 김



희곡집

지현의 '보야르의 노래' 등 2권이다.

특히 종이책 희곡은 친환경 용지와 공기를 일크 등을 사용해 친환경으로 제작했다. 국내 온·오프라인 서점과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62-601-4011. /박성천 기자 skypark@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